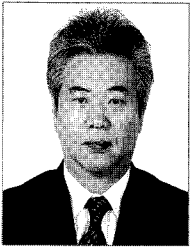


2010년도 육계산업 전망

## 2010년도 배합사료 업계 전망



엄재상 박사  
농협사료 마케팅본부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관련 매체를 통해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올해 사료업계 전망은 대체로 어두운 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국내 사료산업에서 더 이상 확대 발전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단지 업계 관계자들은 제조비용 절감과 업체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물량유지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자 힘쓰고 있다.

배합사료 업체의 희비는 축산농가로부터의 사료물량 확보를 통한 매출증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국제곡물가격의 변화와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보다 각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료곡물의 생산(수급) 현황, 국제펀드 자금의 흐름 및 해상운임 등 사료원료가격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 1. 축종별 사료시장 현황

지난 2008년 9월 리먼사태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와 그 이전부터 시작한 해상운임 및 유류 가격 급등과 같은 각종 곡물관련 지수 상승으로 배합사료 업계는 심각한 손실을 맛봐야 했다. 일부 사료회사의 경우, 사료물량 증가는 오히려 회사의 수지악화를 부추기는 애물단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도 금년 1/4분기 종료시점에서 1,500원을 상회하면서 최고점을 기록했던 환율은 이후 안정적으로 하락하여 지금은 1,180원 내외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고회율, 고곡가, 고유가의 삼중고로 압박 받던 사료업계는 전년도의 손실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1,000~1,100원 정도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어 환율에 의한 곡물가 변동 위험요인은 어느 정도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매체마다 그리고 전문가에 따라 전망이 상반되고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국제곡물가격은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같은 저곡가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반기에는 환율 폭등으로 인한 배합사료 제조원가 상승을 압박했지만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폭등세가 멈추고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된다.

원료 구매 정보에 의하면 금년 3월까지의 다

## 2010년도 배합사료 업계 전망

〈표 1〉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 현황

(단위 : 천톤)

연도	양계			양돈	낙농	비육	기타	합계
	육계	산란계	전체 <sup>1)</sup>					
2000	1,488	1,785	3,867	5,215	1,892	3,340	619	14,932
2001	1,512	1,780	3,836	5,549	1,771	2,760	820	14,773
2002	1,657	2,060	4,053	5,946	1,764	2,753	1,081	15,597
2003	1,559	2,056	3,907	5,663	1,744	2,926	1,016	15,257
2004	1,583	1,758	3,836	5,419	1,632	3,045	819	14,751
2005	1,722	1,920	4,203	5,170	1,587	3,293	826	15,080
2006	1,740	1,951	4,267	5,175	1,539	3,574	920	15,475
2007	1,859	1,946	4,403	5,409	1,449	3,880	1,006	16,148
2008	1,774	1,912	4,286	5,307	1,370	4,165	1,003	16,131
2009 <sup>2)</sup>	1,766	1,764	4,081	4,824	1,190	3,863	960	14,919

※ 1) 육추(병아리) 및 종계사로 물량 포함  
2) 12월 생산물량 제외

〈표 2〉 육용 종계 입식 동향

(단위 : 천수)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34	58	65	51	46	47	58	65	58	40	36	27
2008	34	50	61	51	49	36	51	53	54	48	30	30
2009	32	53	57	55	43	33	57	66	59	59	-	-
평년	31	49	58	46	41	38	55	59	54	42	32	28

※ 출처 : 대한양계협회

소 높은 가격의 곡물을 이용해야 하며, 그 후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환율 변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 1) 양계사료 전망

〈표 1〉의 연도별 배합사료 생산현황에서 양

계사료는 한·육우 사료에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닭고기 및 계란 소비는 급작스런 증가는 보이지 않겠지만 일정 수준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육계

위의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작년 8월

2010년도 육계산업 전망

# 2010년도 배합사료 업계 전망

〈표 3〉 산란 증계 입식 현황

(단위 : 천수)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39	26	68	63	15	0	31	49	96	23	30	10
2008	55	36	43	0	91	96	61	79	18	39	37	30
2009	0	18	44	109	0	73	30	61	56	77	-	-

※출처 : 대한양계협회

6만6천수의 육용 종계가 입식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입식수수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2월 이후 병아리 생산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환우 증가로 종계 도태가 지연될 경우, 2010년 4월 이후 사육수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육계사료도 전년도에 비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산란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6.5% 증가한 6,199만수로 전년 동월보다 6.5% 증가했으며, 본격적으로 산란에 가담하는 6개월 이상의 산란계도 9.9% 증가한 4,709만수를 나타냈다.

또한 〈표 3〉의 산란 증계 입식 자료를 볼 때 금년 3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도 전년보다 6.6% 높아 산란계 사육수수 증가세는 노계도 태 지연과 맞물려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상시 사육수수는 6.5% 증가한 6,415만수로 전

망된다.

이러한 사육수수의 증가는 사료물량 확대로 연결되어 육성계 사료를 포함한 산란계 사료는 전년 대비 10% 내외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양돈사료

모돈수 증가와 써코백신 보급으로 지속적으로 돼지 사육마리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돼지 사육두수는 2008년 동기보다 3.8% 증가한 943마리, 금년 3월에는 지난해 3월보다 3.2% 증가한 947만마리로 전망되어 돼지사료 또한 지난해 대비 3~4% 수준인 15~20만톤 물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두수 증가로 양돈 사료 물량은 증가하나 돈가하락으로 인한 상대적 생산비는 증가함으로써 농가의 사료가격에 대한 충격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양돈 사료 시장에서 농가에

공급되는 사료물량 100톤 기준으로 여신 3억이 기본으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육가구수 감소와 더불어 사육 규모 증대로 업체간의 판촉경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선도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판촉모델의 하나로서 농장 HACCP인증 지원 및 관리, 그리고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사양기술 제공 등 복합 컨설팅을 통한 농가 지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축우사료

지금까지 비육우(한육우) 사료 물량은 해마다 7~8%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 증가폭이 감소되고 오히려 머지 않은 장래에 일정 비율로 감소되는 반대 현상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이유는 반추가축의 경우 지역부산물(총보리,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맥주박, 비지박 등 국내산 조사료와 일부 박류)을 이용한 TMR사료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이거나 이미 타결된 FTA는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쇠고기와 낙농선진국들이 대거 포진된 국내 비육우시장과 낙농시장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

로 보여 계열화가 아니더라도 국내산 쇠고기와 원유생산량 감소로 축우사료 비중이 높은 공장들의 경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비육우와 낙농부분에서 조사료의 급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배합사료업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가. 낙농

지난 10년간 낙농사료는 36%나 감소했는데, 타 축종 사료 물량이 증가하거나 유지보합세를 보이는 것과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2010년 낙농사료 전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전망이나 낙농가 및 젖소사육두수는 현재의 수준(낙농가 6,000호 및 45만두 사육두수)에서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한·유럽연합(EU)과의 FTA 협정은 2010년 낙농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만큼 낙농가들의 사업육구 의욕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시책도 좀 더 낙농산업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바이다.

#### 나. 한육우

앞서 언급한 낙농사료와는 달리 지난 10년간 비육우 사료는 26%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어느 축종보다도 많은 양적 성장을 가져온

2010년도 육계산업 전망

## 2010년도 배합사료 업계 전망

분야이다. 또한 그 만큼 연구개발을 통한 인프라 구성과 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이러한 성과를 가져오게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2009년 12월 한육우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6.1% 증가한 2백62만3천수로 예상되며, 2010년 3월 사육수수 또한 전년보다 7.8% 증가한 2백67만5천수로 전망되며,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통한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 또한 한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와 농가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의 경쟁적인 송아지 입식만 자제한다면 한육우 시장을 둘러싼 관련 산업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육우 사료 분야는 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중소가축 사료 시장에서 보통 8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투를 벌이던 일반 업체들이 축우사료 시장에서 판촉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2009년 7~10월 한육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동기에 비해 6.4% 증가한 144만톤이었으며, 7~9월 비육용 사료는 전년보다 10.7% 증가한 84만톤, 번식우 및 임신우 사료는 12.2% 증가한 25만4천톤으로 나타나 향후 송아지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에 따른 비육우 사료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3. 맺음말

얼마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언급한 2010년도 축산·사료산업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안정성 확보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금년에 신규로 6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에 적용할 할당관세 품목도 지난해수준으로 확보된 상태며,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도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또한 원료 구매방식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사료협회와 농협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료원료를 공동구매토록 유도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사료원료구매자금 우대 지원 등을 통해 사료원료 공동구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등 북미로 편중되어 있는 사료곡물 수입국을 동남아, 중국 등으로 다변화하여 원료 구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체 사료자원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여 원료 수입선 및 품목을 다양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곡물시장에서 수출국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이고 동남아 국가들의 옥수수, 소맥과 같은 주요 곡물 생산 여건은 미흡하여 실효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처럼 갈수록 사료산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

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값싼 원료를 확보하겠다는 노력만이 능사는 아닌 듯하다. 사실상 작년 한 해 동안 사료업체들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다. 여러 가지 비용 절감 방안을 통한 국면타파를 꾀하였지만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환율 상승의 벽은 너무도 엄청났다.

국내 배합사료 공장은 92개소로 농협 가공조합을 포함한 농협사료 공장이 21개소이고, 일반 업체들은 71개소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들 공장 중 많은 수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안정된 품질의 사료를 생산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것은 시설의 보수관리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구조적 한계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생산 스와핑을 통해 사료공장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OEM생산과 유사하지만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적합한 생산 파트너를 선정하여 자기 회사의 시설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천에 한 곳의 공장만을 보유한 회사가 영남지역에 사료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물류비 부담은 사료가격의 20% 가까이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방

식의 가장 큰 장점은 과잉의 설비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회시간 생산 교대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잉 설비에 따른 과도한 경쟁으로 현재도 어려움에 처한 배합사료 업계가 축산업의 구조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육가공업계 또는 축산계열화 업체에 인수합병 되면서 배합사료 업계의 판도는 완전히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축산업의 구조변화로 배합사료산업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수세적인 입장에서 판매량 감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치지 말고 육가공업계와 인수합병, 계열업체로의 전환 등을 통해 적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 계통사료의 경우 회원조합이라는 안정된 판매망에 안주하지 말고 협동조합 중심의 계열화 사업을 주도, 축산 부분의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합사료산업의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필자가 막상 원고청탁을 수락하고 양계사료 위주의 전망을 얘기하려 했으나 다른 축종 분야도 언급하는 것이 전체 사료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하였음을 양해바란다. 